신비한 능엄주와 50마장 극복하는 힘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㊲ 〈능엄경(楞嚴經)〉 4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면 서양 사람들은 머리에 있다하고, 동양 사람들은 가슴(심장)에 있다고 한다. 마음이 이성적인가, 감성적인가에 따른 답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 더 관심이 있다. 마음의 본바탕을 밝히는 지름길로 안내하는 가르침이 〈능엄경〉이다. 즉 '기탁염발묘명(棄濁染發妙明)', 번뇌에 물든 혼탁한 사량 분별의 마음을 버리고,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지혜인 묘명인 여래장묘진여성을 밝힌다. 여래장은 삼관의 실체로서 그 특성에 따라 마음의 실체인 공여래장은 사마타로 수행하고, 지혜공덕상인 불공여래장은 삼마제로 수행하며, 이 둘을 중도일심으로 보는 공불공여래장은 선나로 수행한다.

〈능엄경〉의 하이라이트는 능엄신주의 등장이다. 바른 통찰력과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우리 곁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50마장과 마주쳐 난감해 할 때 만나는 위풍당당 수호신같은 만사형통의 능엄신주 때문에 우리가 이 경을 사랑하는 것 같다. 우리가 지옥 같은 수렁에 빠졌을 때, 부처님이 구해주는 능엄신주와 장애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법은 출가자나 재가자가 간절히 원하는 안전지대다. 그러나 아무나 능엄신주를 외운다고 해서 모두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능엄신주의 가피를 원하는 수행자의 자격 요건이 있으니, 바로 음욕과 살생, 훔치는 것과 거짓말을 반드시 끊어야 하는 기본적인 수행지침이다. 음욕을 행하며 살아가는 재가자가 능엄신주를 통해 가피를 얻고자 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얻고자 함과 같다.

계(戒)에는 섭지(攝持)의 뜻이 있다. 섭은 자석이 금속을 끌어 당기는 힘이다. 성공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이 아닌, 권력자, 재벌과의 연줄로 성공하려는 마음을 '반연심'이라 하는데 이 반연심을 수습하고 돌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케 하는 마음이 바로 섭심(攝心)이다.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은 가장 평온하게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가장 평온한 마음자리(定)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계 · 정 · 혜' 삼학으로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것이다. 윤회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하면 지혜가 등장하는데 이 지혜를 '건혜지(乾慧地)'라고 한다. 이 금강 같은 초심인 건혜지 위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의 54계위로 일체가 환(幻)과 같다는 수행을 하면 불생멸의 성품으로 불생멸의 선정을 닦아 부처님에게로 깊이 들어간다.

우리들이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보고 만지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내 존재가 눈앞에 확실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질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존재감과 사라져간다는 무상(無常)이 충돌하면서 납득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생겨난다. 부처님은 이럴 때 만물이 12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져서 사라져가는 과정을 연기법으로 보여주며 아난과 제자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해주고 있다. 능엄신주는 이렇게 수행하는 이들이 장애와 싸우다 쓰러졌을 때 119구급대원처럼 수행자를 구하는 역할을 한다.

선종의 청규인 〈백장청규〉에서 각종 의례에 대비주와 함께 능엄신주가 꼭 포함되고 있다. 안거를 원만히 회향하기 위해선 능엄단을 만들고 능엄주를 독송한다는 것은 스님들이 선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마(魔)의 경계를 알아차려 장애를 극복하고 성불하기 위한 사전작업인 것이다. 선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50마장은 부처님의 체험을 이론화해서 정리한 것으로 상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읽다보면 마음속 답답함이 사라진다. 결론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겐 장애경험은 절대 없다는 것이다. 장애를 만났을 때 장애 앞에 무릎을 꿇거나 쉬어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장애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다. 혹 마장이 일어나면 그것은 '지금은 수행중'이니 미리 능엄 50마장을 읽고 기억해 두었다가 마장장애가 일어날 때 호들갑떨지 말고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일 것이다.

부처님께서 깨침의 순간에 정수리에서 광명이 출현하여 비밀스러운 능엄신주를 설하셔 아난을 구출하시는 모습을 통해, 성불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부처님이 가르침을 증득하고, 보살의 길에서 실천해야 할 54계위의 수행법은 성불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니 부디 견고하게 받아들여 '자기화' 시키라는 아난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부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자.

〈서울 반야사 주지〉

드러나지 않는 번뇌도 부처님께 바쳐야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㊱ 치심을 닦아 CEO 인재가 되다

'탐진치' 중 치심을 닦아 CEO 인재가 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최고 경영자라 합니다. 그렇다면 CEO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모른다는 생각 역시 착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모른다는 생각이 사라진 그 자리에 부처님 광명이 임하게 되어, 모를 것 없이 다 알게 될 것이니라."

선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하겠다고 설치다가 잘 안되면, "왜 안 되냐?"며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듯하면, 이만하면 되었다고 이름 짓고 만족해합니다.

선지식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요 밝은 존재이기에, 세상의 작은 목표 달성에 만족하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이름 짓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이요, 무지의 소치라는 말씀입니다. 치심이 곧 무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만하면 되었다는 무지의 마음은 아무 형상이 없기에 부처님께 바칠 번뇌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습관화 된 번뇌 역시 다 바쳐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일에 봉착했을 때 처음에는 알려고 시도합니다. "이 무엇인고?" 하는 참선의 화두 역시 우주의 진리를 알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한결 같이 알고자 하면, 대개는 답이 느닷없이 알아지게 됩니다. "이 무엇인고?" 하며 시종일관 알고자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무엇인가를 모르겠다고 이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엇인고?"는 모른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째서 모르겠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 알아지게 될까요?

지금 두 학생 A와 B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집중하고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똑같이 집중했지만 시험 친 결과 A가 B보다 성적이 우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A가 머리가 좋으니 어찌 B가 A를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A는 문제를 대할 때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특성이, 쉽게 '모르겠다.'를 내뱉는 B학생보다 성적이 좋은 이유라 말하실 것입니다. 꾸준히 알려고 하며, 모른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결국 누구나 다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다.'고 이름 짓는 순간 정말 모를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르겠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야 알아지는 이유입니다.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간화선 수행자처럼 "이 무엇인고?" 하며 알려는 마음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설치는 마음이 탐심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동하면 알던 것도 모르게 됩니다.

수시로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데, 이때마다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계속 부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수시로 부처님께 바친다면 꿈으로라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르는 일을 꿈으로라도 알게 되면 이것이 지혜 발현의 시초인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원효대사와 '사사무애법계'

사법계(事法界)는 조그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니 물에 안 빠지고 싶지만 빠져서 괴롭고, 결혼도 하고 헤어지고, 성공도 실패도 하는 것이 인생살이다.

'이사무애법계(理事无涯法界)'는 큰 배를 타고 파도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에 안 빠지게 된다. 그러나 물에 빠진다 안빠진다를 떠나서 물에 빠지면 전복을 따고 진주 조개를 주우면 되니 둘로 나누지 않는 세계가 '사사무애법계(事事无涯法界)'이다. 원효대사가 당대 최고의 스님으로 명성을 날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받고 있을 때 대안(大安) 스님은 경주 남산 골짜기서 움막속에 살면서 산짐승들이나 돌보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걸승인 대안 스님을 길거리서 만나게 됐는데, 나와 같이 가자고 하여 가본곳이 비천(卑賤)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창녀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다. 그런데 술집 주모에게 술 한상 가져오라고 하니,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왕족과 귀족은 물론 상류층과 교류해 온 원효대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니, 대안 스님이 원효대사의 등 뒤에서, "여보시게 원효, 마땅히 구제 받아야 할 중생을 여기두고 어디 가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말인가?"라고 하였다.

경주 분황사에 돌아와서 부처가 둘이 아니고, 색공(色空)이 둘이 아니라고 법문은 했지만, 결국 경계에 부딪히니 귀천(貴賤)을 나누고 깨끗한 것을 취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원효대사는 아무도 모르게 감천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부목(負木) 살이를 시작하게 된다. 그 절에는 방울 스님이라고 하는 볼품없는 꼽추 스님이 있는데, 행동조차도 어린 아이와 같아서 스님들 사이에서 천대(賤待)를 받고 있었다. 원효대사는 나름대로 방울 스님을 특별히 보살펴 주었다. 한동안 마물다가 원효대사가 한밤중에 짐을 챙겨 조용히 대문을 열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문간방에 사는 방울 스님이 얼굴을 빼꼼히 내밀면서 "원효 잘가게" 하면서 방문을 탁 닫아 버렸다. 순간 원효대사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하고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된다.

> "부처가 둘이 아니고, 색공이 둘이 아니라지만, 결국 경계에 부딪히니 귀천을 나누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했다."

원효대사가 하심(下心)한다고 갖가지 어려움을 참고 보살행을 했지만, 그러나 방울 스님은 보살핌을 받아야할 불쌍한 스님이 아니라 이미 깨달아서 밝게 보는 분이었고, 동촌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구제받아야 할 중생이라는 것은 원효대사의 생각이고, 구제받아야 할 중생은 바로 명성(名聲)과 권위(權威)라는 헛된 상(相)에 사로잡힌 원효대사 바로 자신임을 깨우치게 되었다. 그것을 벗어던지기 위해 수행자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계율을 요석공주에게 파계(破戒)하고, 원효대사는 파계한 승(僧)으로서 엎드릴 복(伏)자를 써서 '복성거사'라 스스로 칭하고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광대복장을 하면서 동촌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리게 된다.

이단계가 화작(化作)이며 '사사무애법계(事事无涯法界)'인 것이다. 원효대사가 부목(負木)일 때는 부목을 흉내내는 원효라는 자아(自我)가 있었지만, 지금은 부목이 부목질 하는 것이니 원효대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고기를 잡으면 어부가 되고, 농사를 지으면 농부가 되고 술을 마시면 술꾼이 되고 소를 잡으면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닌 백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사무애법계인 '화작(化作)'이라고 한다. 또한 '사사무애법계'의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차림을 하고 똑같이 어울린다. 화도 내고, 술도 먹고, 싸움도 하니 표가 안난다. 때로는 법상(法床)에도 앉게되고 민중 속에도 함께하며 현생에서 자유자재권을 누리는 것이다. 일체무애인(一切无涯人)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라, 생활속에서 일체처 일체시에 '이뭣고' 수행으로 망념과 집착서 벗어난 무애인(无涯人)이 되어야 금생에 생사(生死)를 해탈하는 대도(大道)를 이루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기봉 전통 범패 의식 강원

전통 불교의식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식 전문 학인을 모집합니다.

◆ 응 시 자 격 ◆

① 입 학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생(음악,국악과) 등 일반
② 제 출 서 류 : 본 강원 소정양식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사본, 해당자)
③ 전 형 일 정 : 2019년 1월 8일까지
④ 개강 기초반 : 2019년 1월 8일 (매주 화요일)
⑤ 상주 권공 : 2019년 1월 11일 (매주 금요일)
⑥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⑦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대흥로 26번지 대은사

※상 담 문 의 : 010-9170-3631

법고무 특강

개 강 | 2018년 11월 19일 (매주 월요일) ~ 2019년 1월 28일 까지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까지
지도 강사 | 기봉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 조교)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백세시대 박 공희 올림